

한일 문화관광해설의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이 효 선**

(e-mail : hslee@bufs.ac.kr)

< 목 차 >

- | | |
|-------------------------|----------------------------|
| 1. 서론 | 3.1. 한국의 문화관광해설 유형 및 운영 체계 |
| 2. 이론적 배경 | 3.1.1. 관광통역사 제도 |
| 2.1. 한일 인바운드관광시장의 현황 분석 | 3.1.2. 프리미엄 교육수료 관광통역안내사 |
| 2.2. 문화관광해설의 개념 및 필요성 | 3.1.3.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
| 2.3. 전문관광과 해설사의 역할 | 3.2. 일본의 문화관광해설 유형 및 운영 체계 |
| 3. 한일 문화관광해설관련 운영체계 비교 | 3.2.1. 전국통역안내사 제도 |
| | 3.2.2. 지역통역안내사 제도 |
| | 3.2.3. 선의통역가이드 및 선의통역조직 |
| 4. 결론 | |

키워드 : 文化觀光解説(Cultural Tourism Interpretation), 觀光通訳案内士(Tour Guide), 文化觀光解説士(Culture & Tourists Guide), 全国通訳案内士(National Government Licensed Guide Interpreter), 観光案内業(Tourist Information Service)

1. 서론

한국관광공사(<http://kto.visitkorea.or.kr/kor.kto>)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관광객은 294만8,527명으로 2012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에 일본은 전체 방한 관광시장의 17.3%를 차지하였고, 2018년은 소폭 증가한 1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8 외래관광객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방문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만족도’, ‘출입국 절차’, ‘대중교통’, ‘길 찾기’, ‘숙박’, ‘관광안내 서비스’, ‘관광지 매력도’, ‘치

* 이 논문은 2019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창의융합학부, 부교수, 호텔관광학

안’, ‘모바일 및 인터넷 이용 편의’에 대하여 하위 1위를 기록하였다. 심지어 ‘쇼핑’에서도 하위 2위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방문 의향’과 ‘타인 추천 의향’에 대해서도 하위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길 찾기’와 ‘관광안내서비스’, ‘언어소통’과 관련해서는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및 관광편의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인관광객은 ‘개별여행’ 61.7%, ‘에어텔’ 30.2%, ‘단체여행’ 8.1% 순으로 개별관광이 그룹관광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관광객 성향의 개별화 및 관광유형의 다양화, 재방문율의 확대 등 관광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해 볼 때 관광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관광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관광만족도 제고와 관련하여 윤정현(2012)은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는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함으로써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연장시키고, 전반적인 관광경험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관광자원보전을 위한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관광해설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목적지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관광지의 장소적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大森(2019)은 사람이 기대이상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귀중한 추억으로 각인되고, 그것이 재방문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입소문으로 확산되어 다른 사람을 유인하는 원천이 된다고 하였다. 관광을 통한 다양한 경험은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그렇다면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 관광해설은 관광지 및 관광자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과도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바운드 관광환경의 변화와 외국인관광객의 관광가치를 높이고자 한국은 2019년 4분기에 1인 관광안내업¹⁾이 합법화될 예정이고 일본은 2018년 1월부터 개정통역안내사법이 시행되어 통역안내사의 업무 독점 규제가 폐지됨과 동시에 자격이 없더라도 유상으로 통역안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 유형 및 운영체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관광정책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사례를 비교·분

1) 관광안내업(가칭)이란 2019년 4분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후 1인 관광가이드로 영업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관광통역사는 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를 제외함.

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의 문화관광해설 서비스의 체계구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해설 분야의 출구 다양성 및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여 관광계열 일본어전공 학생들의 출국전략 및 진로지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한일 인바운드관광시장의 현황 분석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외래관광객 2,300만 명을 목표로 지역관광의 혁신·관광콘텐츠의 혁신·관광산업의 혁신 등 세 가지의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을 내놓았지만²⁾ 외국인관광객 방한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아웃바운드 관광시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2019)의 조사 결과, 방한외래객은 최근 5년간 성장률은 2.3% 증가한 반면 국민 해외관광은 15.6% 증가하였고, 여행 지출비용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성장률은 방한 외래객은 마이너스 2.5%인 반면 국민 해외관광은 12.7%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시장별 외래관광객을 보면 중국시장의 점유율이 2018년 기준 31.2%, 일본 19.2%를 점유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큰 국가는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순이다. 관광경쟁력(WEF)³⁾도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인접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관광지 및 시설’, ‘관광안내’, ‘현지교통’ 부문의 한일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고 지역관광의 편중현상도 이러한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반해 국민 해외여행 열기는 연중 지속되면서 2017년에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고 2018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관광객은 753만8,997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업이 일본인 관광객에 의존하는 비율보다는 일본 아웃바운드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관광시장의 다변화 및 개별관광객의 증가라는 변화에 맞

2)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191(검색일 2019.06.30).

3) 관광경쟁력지수란 세계경제기구(WBF)가 격년으로 136개 국가의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 요소들을 측정한 것으로 측정항목은 Enabling Environment, Travel & Tourism Policy and Enabling Conditions, Infrastructure,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임. 2017년 기준 한국은 19위, 중국 15위, 일본 4위로 일본이 가장 관광경쟁력이 높게 평가됨.

취서 2019년 4분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가 되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이 신설된다. 이는 관광통역안내사 개인이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관광통역안내사가 관광객 유치, 여행 알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금 예치, 등록기준 충족을 통해 여행업 등록을 필요로 하였다. 향후 관광가이드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관광가이드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법안이다. 다만 관광통역안내사는 여행업과 중복되는 업무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관광안내 시장의 성장 및 내실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2020년 방일 외국인관광객 4,000만 명, 관광소비 8조엔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광비전실현프로그램 2019'를 발표하였다. 다언어 대응 및 무료 Wi-Fi 등 관광수용태세 정비, 지역의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 정부차원에서의 관광마케팅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방일 외국인관광객이 쾌적하면서 원활한 이동과 체류를 위하여 2014년부터 미술관 및 박물관, 자연공원, 관광지, 도로, 공공교통기관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⁴⁾.

또한 일본 관광청은 2016년에 제시한 일본의 관광비전에서 관광선진국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의 가치를 국내외 관광객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공시설 및 문화재의 일반 공개,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의 도약, 도시경관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보다 앞서서 2018년 1월 4일에 통역안내사법이 개정되어 통역안내사의 업무 독점 규제가 폐지됨과 동시에 통역안내 업무의 자율성이 확보되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움직임에는 방일 인바운드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지역관광 활성화, 신규 및 재방문객 유치 확대라는 해결과제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관광입국실현을 목표로 다언어대응 개선·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언어 대응 대상·범위·표기 방법, 비상 시의 대응, 언어표기의 통일성 및 연속성 확보 방안, 표지·사인 디자인 및 설치 방법, 방일 외국인관광객의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시 중요한 것은 관광현장에서 다언어 대응의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다언어 대응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함(관광청 <http://www.mlit.go.jp/common/001029742.pdf>(검색일 2019.06.30.)에서 인용).

2.2. 문화관광해설의 개념 및 필요성

문화관광은 타국이나 타 지역의 생활양식과 전통적 풍습 등을 체험하는 관광,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관광,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케 하는 관광(이선희·전주형, 1999)으로서 문화관광의 진정한 매력은 해설에 있다. 해설(Interpret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의미를 설명한다’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문화자원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연구하여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밝힌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박석희, 1999). 다시 말해서 해설이란 관광자원에 녹아 있는 정보를 해석하고 내재된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관광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유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일종의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과 관련하여 엄서호(2001)는 대상관광지의 특징 및 상호관련성을 묘사하거나 설명하여 그곳에 대한 방문자의 관심과 즐거움 및 이해를 증진시키는 행위로서 이는 방문자에 대한 교육적 활동이고, 관광지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는 활동이며, 관광지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이해와 통찰력, 열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김수경(2010)은 여러 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문화관광해설은 교육적이면서 새로운 흥미를 유발시켜 문화와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자원보전과 자원파괴를 저지하며 잠재된 자원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해설능력으로 정의하면서 교육적 측면 외에 관리적 측면과 홍보추진 효과까지 포함시켜 정의하였다. 배만규(2013)는 일본인관광객은 문화관광해설의 흥미성과 교육성, 전문해설성이 관광만족도 및 브랜드 가치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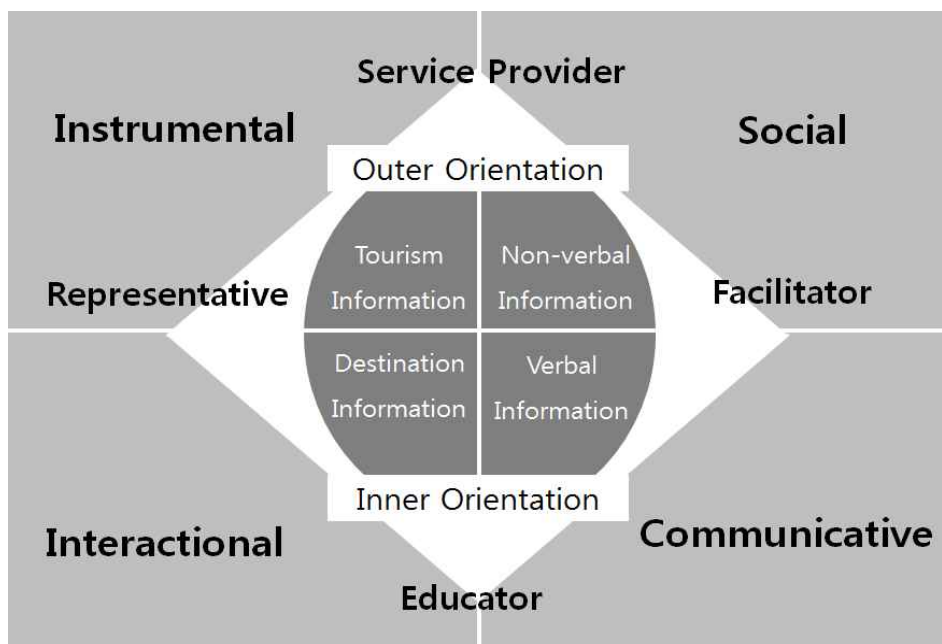
사실 관광객 혼자서는 문화 및 자원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관광자원의 매력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관광객에게 있어서 관광자원에 대한 몰이해는 관광만족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현지문화의 왜곡된 인식과 수용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관광해설이 요구된다.

2.3. 전문관광과 해설사의 역할

관광객의 증가, 특히 재방문객의 증가는 관광객 취향의 다양화, 고급화, 그리고 기대수준의 상승을 동반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을 요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관광의 전문화 및 세분화 추세 속에서 Weiler& Ham(2001)은 21세기 관광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해설사가 동반되는 전문관광을 주장하고 있다(이승재, 2014에서 재인용).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역사유적관광, 생태관광, 체험관광, 농촌관광 등이 전문관광의 형태이고 목적지의 문화·관광·자연 자원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설이 동반되는 전문관광이 나타나고 있다⁵⁾.

[그림 1]에서 이승재(2014)는 Cohen의 가이드 역할 틀에서 가이드는 4가지 기능, 즉 도구적·사회적·상호교류적·의사소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연자원, 문화자원, 유적지자원 등 세분화된 목적지 지식을 갖고 리드하는 해설중심의 내부지향적 가이드 유형과 길잡이로서 관광객을 리드하는 도구적 역할에 중점을 둔 외적 체험형 가이드를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가지 유형의 가이드를 대표하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사와 문화관광해설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1] Chon의 Guide Communication Framework

자료 : 이승재(2014)에서 재인용

5) 현재 체험분야에 따라 한식해설사(농림축산식품부), 자연환경해설사(환경부), 문화관광해설사(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안내해설사(문화재청), 숲해설사(산림청), 지질공원해설사(환경부) 고 구분함.

3. 한일 문화관광해설관련 운영체계 비교

3.1. 한국의 문화관광해설관련 유형 및 운영체계

3.1.1.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에 따르면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래관광객의 관광 및 안전과 편의를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사전에 예약된 손님을 공항에 마중나가고, 여행 경비 산출, 일정표 작성,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환전, 호텔과 택시의 이용 등 입국에서 출국에 이르기까지 관광 여행자들의 관광 일정에 모든 편의 도움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 되어 있다. Whipple & Thach(1988)에 따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관광통역안내사가 관광객의 여행일정 전체를 망치기도 하고, 반대로 여행경험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만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진흥법」 제38조제5항(동법 제7조 준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이다.

<表 1> 관광통역안내사관련 시험정보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	1. 국사(근현대사 포함)	25	40%	50분	객관식 4지 택일형
		2. 관광자원해설		20%		
	2	3. 관광법규	25	20%	50분	
		4. 관광학개론		20%		
제2차 시험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인당 10-15분 내외	면접

자료 :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조(<http://www.q-net.or.kr>)

<表 1>과 같이 관광통역안내사의 공인어학성적기준은 JPT 740점 이상, NIKKEN 750점 이상, FLEX 776점 이상 JLPT N1 이상으로 2년 이내에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하고 있다⁶⁾. 시험 합격기준은 1차 시험 때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2차 시험은 총 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⁷⁾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면제한다. 이에 반해 일본은 외국어 시험은 70점 이상 취득해야만 통과될 수 있고 응시자 수 대비 합격률은 10% 미만으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신규업종으로 관광안내업이 신설될 예정이다. 관광안내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여행업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인 개별관광객 증가에 따라 1인이나 소규모 통역 및 관광안내가 가능하도록 신규 여행업으로 1인 또는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여행업을 하려면 등록자본금 1억 원과 사무실 구비가 필요했으나 신설되는 관광안내업은 등록자본금 요건이 없고 사무실 대신 자택 영업도 가능해진다.

다음의 <表 2>는 전국 관광통역안내사 종사자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일본어와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누계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관광안내업의 신설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특화된 분야의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객 입장에서는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表 2> 전국 관광통역안내사 종사자 현황

관광통역안내사		2015년 기준 종력자 누계(명)	2016년 기준 종력자 누계(명)	2017년 기준 종력자 누계(명)
외 국	영어	6,159	6,623	7,152
	일어	10,330	10,483	10,669

- 6)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자,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중·고등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함.
- 7)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그 비중을 보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30%, 관광안내실무 20%, 관광자원안내실습 50%임.

어	중국어	9,613	11,031	11,770
	불어	178	184	191
	독어	115	118	119
	스페인어	103	106	110
	러시아어	116	122	130
	말레이/인도네시아어	64	130	213
	베트남어	25	30	52
	태국어	79	94	122
	아랍어	2	6	9
	이태리어	-	2	2
계	26,784	28,929	30,539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9b) 『숫자로 보는 한국관광 2018』에서 인용함

3.1.2. 프리미엄교육수료 관광통역안내사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교육사업 중에서 프리미엄관광통역안내사는 개별관광, 특수목적관광 등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테마별 전문가 양성교육인 프리미엄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광통역안내사를 의미한다. 3년 이상 관련 경력보유자를 대상으로 VIP 서비스, 관광스토리텔링 기법, 보이스 코칭, 안전 교육 등 공통과정과 한국의 역사문화, 세계유산, 의료관광, 음식관광 등 테마별 심화과정 등 총 70시간의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이수자 인력풀은 전문 관광통역안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제교류 부서, 인바운드 여행사, 주한 다국적 기업 등 수요처에 인력활용 촉진 홍보를 도와주고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관광안내업이 신설되어 1인이나 소규모 통역 및 관광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테마로 심화과정 교육이 개설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 전국통역안내사에게 실시하는 연수내용과 같이 위기관리 및 재해 발생 시 대응요령, 윤리 법령, 종교상의 유의점 및 식사 제한관련 지식, 문화별 및 국적별 특성 등도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3.1.3.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의 문화재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박석희(1999)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문화재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록 해야 하며, 관광객이 원하는 방문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령층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문화관광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현장에서 폭넓은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인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에듀테이너(edutainer)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유산해설사는 2001년부터 시작하였고 초기에는 문화재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운용되었으나 해설분야나 활동 지역이 생태 및 녹색관광, 농어촌 체험관광, 관광지와 관광단지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해설사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2005년 8월 1일부터 초기의 문화유산해설사라는 명칭이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되었다. 그 후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어 오던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마침내 2011년 4월 5일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그러다가 2019년 1월 문화관광해설사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과정, 교육내용, 인력, 조직 및 시설, 장비를 모두 갖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였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은 관광진흥법(18.12.11) 및 시행령(19.4.9) 일부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하게 된다. 교육시간은 총 100시간으로 해설사의 역할과 자세, 서비스마인드관련 소양교육, 한국 주요 관광자원 및 지역특화자원, 스토리텔링 해설기법, 응급처치 실습 등 해설 현장 활용성 중심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表 3〉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등록 현황

지역	양성인원				활동인원		
	2015	2016	2017	2001-2017	2015	2016	2017
서울	18	29		328	186	206	214
부산	18			160	114	90	92
대구	15			279	124	122	122
인천		4	10	229	111	102	108
광주		26		150	64	83	81
대전				79	46	45	44
울산		11	15	145	46	54	65

세종	5			13	4	7	8
경기	8	35		867	511	533	477
강원	35	23	15	338	151	182	195
충북	8			210	173	165	168
충남	14	23	17	282	135	159	170
전북	20	31	35	504	212	220	238
전남	26	15	28	517	270	290	316
경북	32	37		577	332	336	358
경남	7	19	20	421	191	191	193
제주	41		41	312	121	154	200
합계	247	253	181	5,411	2,791	2,939	3,04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인용함

지금까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는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해왔다. 일반적으로 관광지 및 역사문화유적지 등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도보관광, 시티투어, 체험관광, 수학여행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의 확대 및 배치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 서울도보관광⁸⁾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측면에서 우수사례가 될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로서 문화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이 문화재안내해설사이다. 일본어 문화재안내해설사의 채용조건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가 없는 만 18세 이상의 자로서 공인 어학시험 기준점수 JPT 740점, JLPT N1, NIKKEN 750점, FLEX 776점 이상이어야 한다⁹⁾. 우대 경력 및 자격 조건으로는 공필 안내해설 1년 이상 경력,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이다. 문화재안내해설사에 의해 일본어해설이 이루어지

8)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도보관광(<http://korean.visitseoul.net/walking-tour>)과 같이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를 서울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을 들으며 도보로 탐방하는 관광프로그램인. 도보관광코스는 6개의 테마로 분류하여 총 26개 코스와 서울시청사 통통투어 등 상설운영코스 3개를 포함하여 총 29개의 코스를 운영 중임. 시·창각 장애인 도보관광은 덕수궁 코스 1개, 청각 장애인 도보관광은 4개의 수화 해설 코스로 운영하고 있음.

9)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및 일본어 안내 해설, 통역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경력자는 공인 어학시험 기준 점수 자격요건에서 제외됨.

고 있는 유적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등 궁궐 유적에서만 배치되어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역의 역사와 고유의 전통문화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국어 문화관광해설사를 상시 체류시키거나 문화재안내해설사를 고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2. 일본의 문화관광해설관련 유형 및 운영체제

3.2.1. 전국통역안내사 제도

일본 통역가이드제도와 관련하여 2018년 1월4일에 기존 통역안내사 명칭이 전국통역안내사로 개정되었고 통역안내사관련 업무의 독점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무자격자라도 유상으로 통역안내업무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관광안내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업무독점규제는 폐지하고 통역안내사는 전국통역안내사로 바뀌고 지금까지 특례법에 의거 도입되었던 각 지방특례가이드는 새롭게 지역통역안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 통역안내사는 일본어 이외의 언어를 이용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것으로 1949년에 시행된 통역안내사법에 의해 국가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18년 1월4일부터는 통역안내사의 양적 부족 및 가이드 니즈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격이 없이도 통역안내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명칭독점 자격으로서 통역안내사 등록제도는 존속하고, 기존의 통역안내사는 전국통역안내사로 이동 전환된다.

전국통역안내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필기과목에 추가하여 통역안내 실무 과목이 추가되었다. 기존에 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관광청이 경과조치 연수인 관광청 연수¹⁰⁾를 받으면 되고 앞으로 전국통역안내사는 5년마다 등록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정기적인 연수가 의무화된다.

2019년 4월1일 기준 전국통역안내사 등록자 수는 25,239명이고, 2018년에만 753명이 합격하였다. 시험은 연령, 성별, 학력, 국적 등과 관계없으며, 시험과목은 <表 4>와 같다. 한국의 관광통역안내사와 비교하여 역사능력검정 일본사 1급과 2급 중에서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학입시센터시험 일본사B가 60점 이상이면 일본역사를 면제하고, 대학입시센터시험 현대사회가 80점 이상이면 일반상

10) 관광청연수자료는 통역안내사법·여행업법에 관한 지식, 여정관리 실무, 위기관리와 사전조사, 재해발생 시의 대응요령, 윤리법령 준수, 종교상의 유의점 및 식사제한관련 지식, 문화별 및 국적별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음(<http://www.mlit.go.jp/common/001231952.pdf>(검색일 2019.06.30.)에서 인용).

식을 면제하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이다.

〈表 4〉 전국통역안내사관련 시험정보

구분	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합격기준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오전	1. 외국어 ¹¹⁾		70/100점	120분	객관식/ 영어·중국어· 한국어 이외는 서술식
	오후	2. 일본지리	40문항	70/100점	40분	
		3. 일본역사	40문항	70/100점	40분	
		4. 산업·경제·정치 및 문화에 관한 일반상식	40문항	30/50점	20분	
		5. 통역안내의 실무	30문항	30/50점	20분	
제2차 시험		통역안내의 실무 (구술시험)	[평가항목] 70% - 프레젠테이션 - 커뮤니케이션 - 문법 및 어휘 - 발음 및 음성 - 호스피탈리티		10분	3개의 테마 중에서 1개 선택 2분간 프레젠테이션 실시 /이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 : 관광청(<http://www.mlit.go.jp/common/001283294.pdf>) 자료에서 발췌하여 작성함

일본정부관광국(JNTO)에서 발표한 2018년 전국통역안내사 응시자 수 및 합격자 수 자료¹²⁾를 보면, 전체 7,651명 수험자 중 제1차 시험 합격률은 23.0%이고, 제2차 시험 합격률은 44.7%이므로 응시자 7,651명 중에서 753명이 합격하여 9.8%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그 중 한국어 응시자 수는 300명이었고 이 중 29명이 합격하여 9.7%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일본 전국통역안내사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준비가 요구된다.

이어서 전국통역안내사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일본관광청 통역안내사 등록 정보검색 사이트를 개설하여 여행사와 통역안내사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 1940년에 설립된 일본관광통역협회(JGA:Japan Guide Association)는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통역 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10개 국어를 대상으로 가이드 및 통역 소개 업무, 더 나아가 방일 인바운드관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¹³⁾. 2018

11) 외국어 필기시험은 독해문제(25점), 외국어-일본어번역문제(15점), 일본어-외국어번역문제(30점), 외국어 설명(30점)을 기준으로 하고 합격기준은 70점임.

12) https://www.jnto.go.jp/jpn/projects/visitor_support/interpreter_guide_exams/gokakusha_30.pdf(검색일 2019.06.30.).

년 12월 기준 897명(영어 711명, 프랑스어 81명, 스페인어 49명, 중국어 43명, 이탈리아어 19명, 독일어 17명, 한국어 16명, 러시아어 13명, 포르투갈어 10명, 태국어 3명) 정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등급을 나누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表 5〉 일본관광통역협회의 회원 등급 운영체계

구분	내용	취업수첩표지색
C급	입회 절차 후 취업절차(C)를 신규가입 회원에게 부여	분홍색
B급	입회해서 만 1년이 경과하고 취업일 수가 60일 이상인 회원	파랑색
준A급	2019년 3월1일부터 도입예정	미정
A급	B급 기간이 만 2년을 경과하고 B급 기간 중 취업일 수가 180일(전일정 그룹여행 10회 이상 참여) 이상이면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회원	검정색

자료 : 일본관광통역협회(https://www.jga21c.or.jp/jga_organization.html)에서 인용함

한국의 관광안내업이 신설되면 다음의 2가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본관광통역협회의 가이드검색시스템(<https://www.guidesearch.info/>)이다. 이 시스템은 2006년부터 운영해왔고 검색 창에는 방문지, 통역형태(통역가이드/통역가이드+비즈니스통역), 언어 및 성별, 특기 분야(역사·명소 유적, 전통문화, 음식문화, 서브컬처, 패션, 과학·기술, 네이처 아웃도어, 미술, 음악, 의료관광)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본관광통역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 스스로 도보와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안내하는 JGA가이드기획투어이다. 아직 전국적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의 가이드수요 발굴과 연계 가능한 새로운 취업형태이기 때문에 향후 투어프로그램 운영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3.2.2. 지역통역안내사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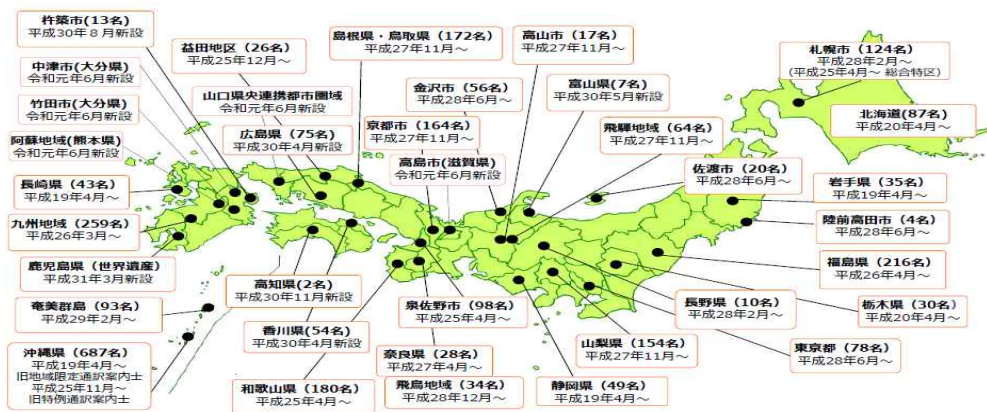
1997년에 제정된 「外国人観光旅客の旅行の容易化等の促進による国際観光の振興に関する法律(外客来訪促進法)」의 특례로서 2006년에 제정된 도도부현(都道

- 13) 관광청 주최 토론회 참가 및 JNTO 협력, 관광단체에 법인회원으로 참가, 관광입국추진위원회에 유일하게 통역안내사단체로서 참가, 각종 미디어의 취재협력, 찬조회원과의 정보교환 및 협력, 지방 관광부서에 협회지 발송 등 전국관광통역안내사로서 자부심과 긍지, 인바운드관광 발전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음.

府)단위의 각 지역특레가이드제도는 새롭게 지역통역안내사로 전환된다. 즉 한 개의 도도부현(都道府縣)에 한정해서 통역안내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지역한정통역안내사는 2007년부터 6군데(北海道、岩手県、栃木県、静岡県、長崎県、沖縄県)에서 실시했지만, 2017년 기준으로 沖縄県만 실시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각 특레법에 의거하여 도입되었던 지역특레통역안내사 제도나 지역한정통역안내사는 지역통역안내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지역통역안내사는 특정 지역에서 그 고유의 역사·지리·문화 등 현지정보에 정통한 자로서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등록한 자이다. [그림 2]와 같이 36개 지역에서 도입하여 2019년 4월1일 기준 2,631명이 등록되어 있다. 지역통역안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지역통역안내사 육성 계획을 세워서 관광청 장관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인증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통역안내사와 지역통역안내사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2018년 법 개정에 의해 유상으로 통역안내업무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단 전국통역안내사와 지역통역안내사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어떤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림 2] 일본 지역관광통역안내사 도입지역 분포 현황

자료 : 관광청(<https://www.mlit.go.jp/common/001298802.pdf>)자료에서 인용함

3.2.3. 선의통역가이드(GG=Goodwil Guide) 및 선의통역조직(SGG)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외국인관광객의 언어장벽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일명 선의통역가이드(GG=Goodwill Guide)라는 선의통역보급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1964년 동경올림픽 개최 시에 처음 시작된 이래, 1979년부터는 연중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 운동이 전국으로 보급되면서 변화가, 역 주변, 교통시설 등에서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선의통역보급운동 자체는 어디까지나 개인 자격으로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의통역조직(SGG=Systematized Goodwill Guide)이라는 자원봉사 단체조직을 발족시켜 외국인관광객이 보다 즐겁게 일본 국내를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전국의 SGG 연대를 촉진시키기 위해 1989년부터 지자체 추천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뛰어난 활동을 한 개인과 5년 이상의 조직에 대하여 JNTO 이사장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관광객 수용태세 정비 및 관광편의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 외국인관광안내소 인증제도를 들 수 있다. 2012년부터 모집을 실시하고 안내소의 입지 및 기능에 따라 3개의 유형과 파트너 시설로 분류한다. 일본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945개 관광안내소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충실한 일본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表 6〉 일본정부관광국(JNTO) 인정 외국인관광객안내소 인정범위 및 분류

구분	개수	내용
카테고리 3	50	상시 영어 대응이 가능하고 영어를 제외한 2개 이상의 언어로 안내가 상시 가능한 체제임 전국수준의 관광안내를 제공하고, 연중무휴, Wi-Fi 가능. 교통요지 및 외국인방문객이 많은 지역
카테고리 2	278	최소한 영어로 대응이 가능한 스태프 상주해 있고 광역안내 제공
카테고리 1	508	상주가 아니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영어대응 가능. 지역 안내 제공
파트너시설	109	관광안내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시설이지만 외국인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지가 있고, 공평·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역 안내 제공
총	945	

(자료 : https://www.jnto.go.jp/jpn/projects/visitor_support/tic_nintei.html에서 인용함)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문화관광해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사와 문화관광해설사, 일본의 전국통역안내사와 지역통역안내사를 중심으로 관광정책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한일 양국 모두 관광시장의 다변화와 개별관광객의 증가, 재방문의 확대 등 관광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1인 또는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진 관광안내업이 신설될 예정이고 일본에서는 전국통역안내사 및 지역통역안내사 상관없이 누구든지 통역안내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문화관광해설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문화관광해설관련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일본과 같이 직업으로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전국통역안내사 시험과목 및 운영방법처럼 실무중심의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일본관광통역협회(JGA)는 주요 사업으로 취업연계가 아닌 각종 연수프로그램 수행 및 관광통역 해설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이며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문화관광해설관련 업무의 체계화된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일본은 통역가이드 제도를 개편하기에 앞서서 관광수용태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다언어 대응관련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거나 외국인관광안내소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유형별 기능에 차별점을 두어 방일 외국인관광객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관광청이 운영하는 통역안내사 등록정보 검색시스템과 일본관광통역협회(JGA)의 가이드검색시스템, 일본 36개 지역의 지역통역안내사 선발 및 교육, 관리시스템의 체계화 등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문화관광해설관련 종사자가 능동적으로 도전하여 직업으로서 안정화하는 것이다. 이제 1인 또는 소규모 통역 및 관광안내가 가능해져 1인 창업이 현실화되었고 개별관광, 특수목적관광, 전문화된 테마관광에 부합하는 해설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관광통역안내사가 스스로 가이드기획투어를 발굴하여 수요 창출 및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광정책적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관광해설관련 운영체계

를 분석하여 제안한 것이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 향후 실제 관광현장에서 문화관광해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부산시의 문화관광 해설체계를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수경(2010)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능력이 관광객만족,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관광레저학회, pp.25-40.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p.47.
- _____ (2019) 『2018외래관광객 실태조사』 pp.97-115.
- 박석희(1999) 『나도 관광자원 해설가가 될 수 있다』 백산출판사, p.13.
- 배만규(2013) 「일본인 관광객의 문화관광해설에 대한 만족도와 브랜드 가치 인식에 관한 연구-안동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관광레저학회, pp.25-40.
- 엄서호(2001) 「경기도 문화유산해설사의 의미와 역할」 『관광경영학연구』 3, 관광경영학회, pp.95-114.
- 윤정현(2012)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 및 해설내용이 감정반응 및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pp.467-474.
- 이선희·전주형(1999) 「문화관광의 가치측정에 관한 연구(II)」 『문화관광연구』, pp.107-125.
- 이승재(2014) 「관광유형다변화에 따른 문화해설사양성에 대한 제언」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관광레저학회, pp.25-40.
(DOI:http://dx.doi.org/10.14400/JDC.2014.12.4.467)
- 한국관광공사(2019a) 『2017-2018 한국관광통계』 p.11.
- _____ (2019b) 『숫자로 보는 한국관광 2018』 한국관광공사, p.10.
- 大森寛文(2019) 「インバウンド価値共創と推進課題—東京多摩地域外国人観光客を呼び込むために—」 『明星大学経営学研究紀要』, pp.59-78.
- Weiler B. & Ham, S(2001) 「Tour guide and interpretation」 In D Weaver (Ed), 『The encyclopedia of ecotourism』, pp. 549-563.
- Whipple, T. W. & S. V. Thach (1988) 「Group Tour Management: Does good service produce satisfied custome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9(2), 16-21.
- 산업인력공단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7>(검색일:2019.04.07.)
- 한국관광공사 : <http://kto.visitkorea.or.kr/kor.kto>(검색일:2019.05.15.)
- 서울도보관광 : <http://korean.visitseoul.net/walking-tour/>(검색일:2019.06.02.)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검색일:2019.06.07.)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 :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191(검색일:2019.06.30.)
- <https://www.guidesearch.info/>(검색일:2019.06.30.)
- 일본정부관광국:https://www.jnto.go.jp/jpn/projects/visitor_support/tic_nintei.html(검색일:2019.04.01.)
- 일본관광통역협회:https://www.jga21c.or.jp/jga_organization.html(검색일:2019.05.15.)
- 관광청 연수자료 : <http://www.mlit.go.jp/common/001231952.pdf>(검색일:2019.06.30.)
- 관광청 일본 지역관광통역안내사 분포:

<https://www.mlit.go.jp/common/001298802.pdf>(검색일:2019.06.30)

전국통역안내사시험가이드라인: <http://www.mlit.go.jp/common/001283294.pdf>(검색일:2019.06.30.)

일본 관광청 자료:<http://www.mlit.go.jp/common/001029742.pdf>(검색일:2019.06.30.)

일본정부관광국 전국통역안내사 :

https://www.jnto.go.jp/jpn/projects/visitor_support/interpreter_guide_exams/gokakusha_30.pdf

(검색일:2019.06.30.)

논문 투고 일자 : 2019. 06. 30.

논문 심사 일자 : 2019. 08. 02.

게재 확정 일자 : 2019. 08. 05.

<要旨>

日韓における文化観光解説の運営システム研究

李孝仙

韓国と日本は、観光客の性向の個別化及びインバウンド観光タイプの多様化、差別化された観光コンテンツの開発、再訪問率の拡大などの課題を抱えている。日韓ともに観光市場のパラダイムシフトに伴う新しい観光戦略として文化観光解説サービスの強化に尽力している。それを通じて観光経験の質を向上させるだけでなく観光地の場所的な価値を高める手段にもなるため、外国人観光客には必ず提供されるべきサービス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

したがって、本研究では韓国と日本で運営されている文化観光解説を遂行している専門家のタイプ、すなわち観光通訳案内士(Tour Guide)、文化観光解説士(Cultural Tour Guide)、全国通訳案内士(National Government Licensed Guide Interpreter)の特性や制度的な運営システムについて考察したいと思う。大学における観光系列の日本語専攻学生の進路探索に役立つと共に、進路指導の面でも価値のある資料として活用され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

A Study of the Operating System of Cultural Tourism Interpretation

Lee, Hyo-Seon

The tourism industry in Korea and Japan has challenges such as individualization of tourists' tendencies, diversification of inbound tour types, development of tourism content, and expansion of revisiting rate. As part of a new strategy to cope with the paradigm shift of the tourism industry, many efforts have exerted to strengthen cultural tourism interpretation. The cultural tourism interpretation not only improves the tourism experience but also works as the means to improve the value of tourism venues. Therefore, it is a service that must be provided for tourist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eatures and institutional operating system of tour guide, Culture & Tourists Guide, and national government license guide-interpreter who are conducting cultural tourism interpretation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 chance for a better career for students of Japanese language study for tourism and for their career guidance.